

News

금감원, 라임사태 신한·우리은행 제재 수순

매일경제

금감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펀드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는 감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
증권사에 이어 은행에도 라임 관련 제재가 가해지는 모양새... 11월 초까지 은행들 의견서를 받고,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뒤 제재심 안건 상정 예정...

건전성·제재 리스크...빛바랜 '글로벌뱅크'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활발히 전개... 대출 늘리며 공격적 행보...연체 및 NPL 높아져... 현지 금융제재도 30건...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주로 글로벌 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적지 않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픈뱅킹', 12월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도 이용

국민일보

오픈뱅킹 서비스 범위가 은행권에서 증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확대... 마이데이터 및 마이페이먼트 사업자에게도 오픈뱅킹 인프라 개방...
참여 기관 확대와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계좌 범위도 늘어날 예정...

차기 은행연합회장 누가 될까? ...하마평 무성

더팩트

26일 인선 절차 시작...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 등으로 대관업무가 중요해지면서 관료 및 정치권 인사 하마평 올라...

보험금 거절용 '의료자문' 지적에...피해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뉴시스

보험회사가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 의무화에 나서...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제3의로기관을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도록... 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오늘(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6억?

머니S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22일부터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음주운전 사고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

크라우드펀딩 시장 성장 꺾이는 당국...증권사는 외면

e대한경제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키우기 위해 연간 모집 한도가 확대 및 프로젝트 투자 대상 확대 추진... 하지만 증권사들은 수익성 탓 외면...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취지는 좋지만, 증권사 입장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라임자산운용 퇴출...판매 증권사 징계 수위에 높아지는 관심

뉴데일리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에 최고 제재 수위인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려...
29일 예정된 제24차 제재심에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조치안이 상정...CEO 징계 가능성 높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